Mobilty at a glance

meritz 메리츠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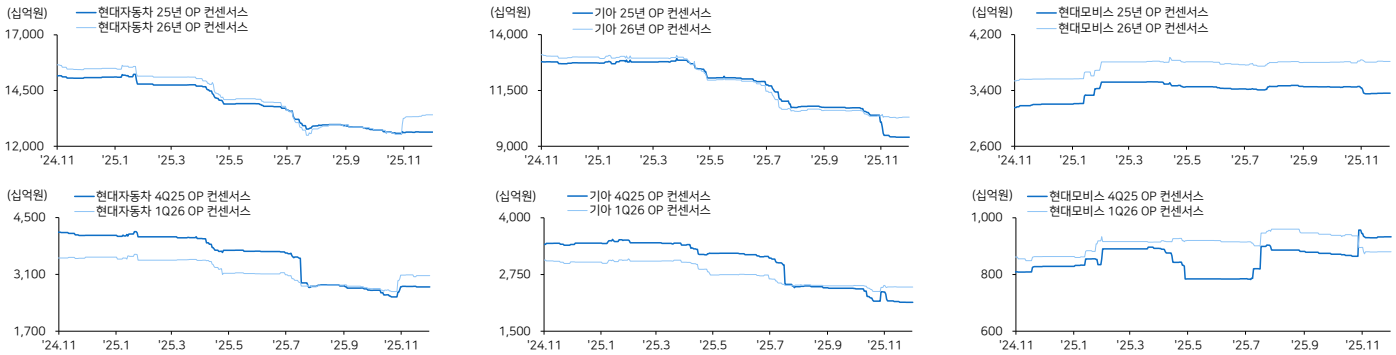
2025.12.5 (금)

자동차/모빌리티 Analyst 김준성 joonsung.kim@meritz.co.kr
RA 김아현 a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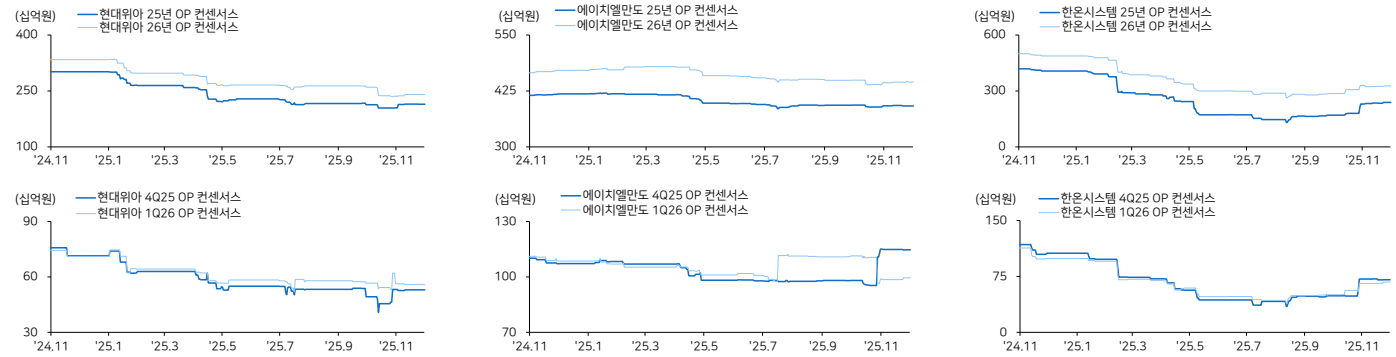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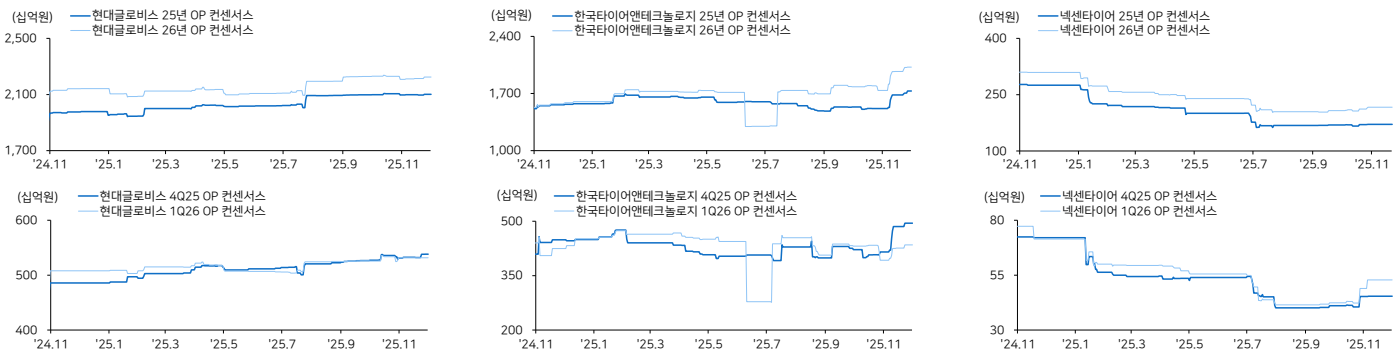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현대글로비스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국내외 주요 뉴스

Tesla CEO Elon Musk announces major update with texting and driving on FSD (Teslarati)

일론, 최신 FSD 버전인 v14.2.1에서 운전 중 문자 전송 기능 허용 발표. 이는 FSD가 여전히 레벨 2 자율주행 시스템이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대부분의 주 법률과 상충될 가능성 존재. 일론은 '맥락에 따라' 이 기능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힘

https://zrr.kr/LtMAhA

미중 전쟁 다음 라운드는 '로봇'…美, 세제 혜택에 연방 자금까지 (서울경제)

전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의 54% 차지하는 중국에 맞서, 미국은 로봇을 리쇼어링 핵심으로 규정하며 중국 의존 탈피 추진. 미국은 Nvidia 칩 수출 규제 법안을 제외했으나, 중국 내에서는 AI 칩 자립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분위기

https://zrr.kr/GG2236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 "자율주행 내재화해야…톰티어 전략 실행" (연합뉴스)

현대차 부회장, 최근 FSD 및 SDV 기술 내재화의 중요성 강조 및 웨이모 수준의 로보택시를 목표로 모셔널 개발 중임을 밝힘. 그룹의 미래 방향성으로 에너지와 AI분야로의 전환을 제시하며, 장기적으로는 Xiaopeng처럼 톰티어 전략을 구상 중임을 언급

https://zrr.kr/Zxhvme

EU launches 1st formal review of Chinese EV tariffs after VW Anhui's submission (SCMP)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VW 안후이 합작법인이 제출한 가격 약속 제안에 대해 첫 공식 검토 시작. 이는 다른 제조업체들에게도 관세 감면 및 철회 가능성의 희망으로 보이나, EU-중국 간 무역 긴장은 지속 중

https://zrr.kr/VfOvX7

볼보 CEO "2035년 내연차 규제 풀리면 中만 유리해질 것" (디지털투데이)

볼보·폴스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를 추진하는 EU 계획 지지 표명. 이들은 내연기관 금지 조치 완화될 경우 유럽 자동차 산업이 중국 EV 제조사들에게 뒤처질 것이라 경고. 이러한 EU의 계획에 대해 유럽 자동차 업체들 간 이견 존재

https://han.gl/yvCpn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 '대규모 태양광' 설비 구축 (뉴스핌)

기아, 국내 사업장의 RE100 달성 속도 향상 위해 오토랜드 화성에 대규모 50MW급 태양광 발전 설비 및 ESS 설치 계획. 이는 민·관·공 협력 사례로,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 이행과 기업의 탄소중립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https://han.gl/iqxgX

후 사고는 공중 보건 위기 "자율주행에 해법 있다"…웨이모 보고서 (디지털투데이)

신경외과 전문의 슬롯킨 박사, 웨이모의 대규모 자율주행 데이터 분석 결과, 인간 운전자에 비해 웨이모 차량이 교통 안전의 개선 가능성으로 이어짐을 확인. 자율주행차가 규칙을 준수하므로 사고 예방 차원에서 공중 보건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

https://han.gl/D7Usk

동남아서 일본차 '아성' 흔들…中 전기차 공세에 점유율 70% 위태 (뉴시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동남아 시장 진출해 EV 가격 인하 공세 강화하며, 태국 등 주요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의 판매 점유율 급락. 일본 업체들은 태국 내 생산 시설 통합 혹은 축소로 대응에 나섬. 이는 일본계 부품 회사를 포함한 전체 공급망에도 영향.

https://zrr.kr/AZeLmM

현대차, 국내판매·제네시스본부 사령탑 교체…김승찬·이시혁 승진 (서울경제)

현대자동차, 주요 사업부 수장 교체하는 임원 인사 조기 단행. '영업통' 김승찬 전무, 부사장 승진. 제네시스 기획 전문가 이시혁 상무, 전무 승진.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높여 별도 권역으로 분리하고 타운 갈크 사장을 본부장으로 선임하며 시장 대응 강화

https://han.gl/44yN6

Li Auto reaches 20,000 superchargers as it struggles to boost BEV deliveries (CnEVPost)

Li Auto, 자체 초급속 충전소의 누적 충전기 수 2만 번째 돌파. 이는 중국 자동차 제조사 중 가장 큰 규모. 2023년 4월 첫 충전소를 선보인 이래 다양한 고출력 충전기를 설치하며 그 중 5C 초급속 충전소 건설을 우선시하는 중

https://zrr.kr/0qNahd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